

공동체 소식



연중 제30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
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교구 2019 Convocation "Enflame Our Hearts" 참가자 모집

- 2019년 1월~9월 : 1단계 사전작업
- Enflame Our Hearts Convocation :
일시 : 2019년 10월 3일(목) 오후 5시
~5일(토) 12시 30분
장소 : Overland Park Convention Center.

복사단 모임

- 2018년 11월 4일(일)
미사 후 (공동체 식사 후)

애찬 봉사자 모집

- 애찬봉사자를모집합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 문의: 이영민 엘리사벳 (총구역장)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5 columns: Song Title, Lyrics, Chorus, Verse, Refrain. Rows include '금 주' and '차 주'.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Day, Homily, Eucharistic Prayer. Rows include '금 주' and '차 주'.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Day, Reader, Scripture. Rows include '금 주' and '차 주'.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Day, Volunteers. Rows include '금 주' and '차 주'.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Day, Donors. Rows include '금 주' and '차 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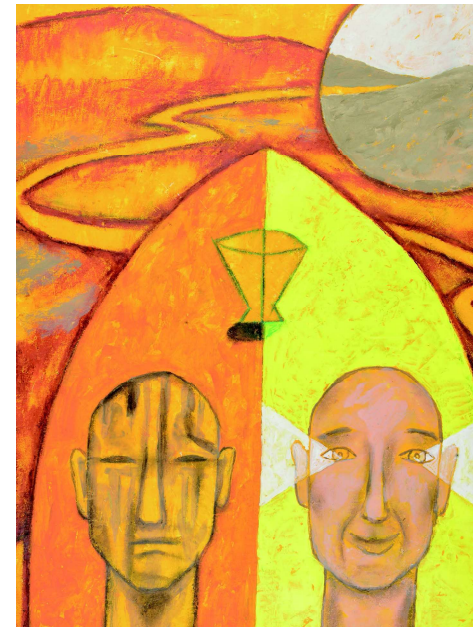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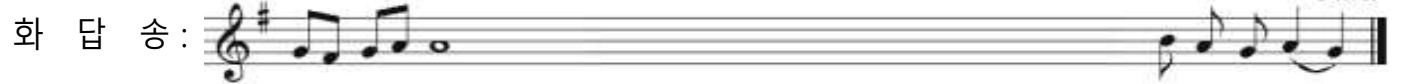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드님을 의롭고 자
비하신 사제로 삼아, 눈먼 이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
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
으시고, 우리가 아드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림 묵상

불쌍한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작은 믿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따
르는 길 위로 희망의 해가 떠오릅니다. 탐욕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바르티매오처럼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청해 봅니다.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1,7-9
<눈먼 이와 다리저는 이를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
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
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
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 독 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5,1-6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46ㄴ-52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보좌신부 시절 매달 다니는 봉성체 환자 중에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이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중풍이 와 거동은 물론 말도 거의 못 하고, 한두 평 남짓한 움막 같은 집에 혼자 누워서 지냈습니다. 하루 세끼 으깬 감자를 물과 함께 먹으며 10년 가까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딸은 평상시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방학 때면 항상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독일 유학을 가게 됐고, 제 교리반에서 교리 공부를 하셨던 의사 선생님에게 그 부녀를 돌봐주십사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딸아이의 고등학교 진학과, 가끔 그 집을 방문해서 환자를 돌봐주시고 가능하다면 요양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단단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부녀의 소식을 여쭙었습니다.

“신부님, 그 어린 딸이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아이예요. 좋은 상업고등학교를 들어가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요양원 자리가 나서 환자를 거기로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이 모시겠다는 거예요. 스무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너무 단호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겠다는 어린 소녀, 말 한마디 부탁으로 몇 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그 선생님, 모두 기적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가끔은 궁금합니다. 지금은 40대 중반이 넘었을 그 소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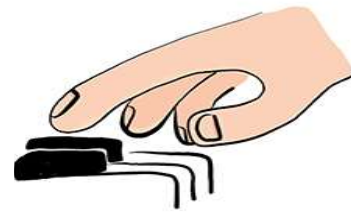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예리코의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되찾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용감하게 큰소리로 외칩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처지였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바르티매오는 우리 신앙인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눈이 먼 소경입니다.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소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엉뚱한 곳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잘 닦아야 잘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어떤 것들은 오히려 눈을 감아야 더 잘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소경입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얘야.

지금은 서운할지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란다.
무의미한 듯 반복되는 것 안에서
넌 진정한 너의 마음을 마주 대할 거란다.

내가 이것이 왜 하고 싶은지
내게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하지만, 지금은 서운할 테지.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 10,52)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대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만 있던 제게 친구는 그냥 꼭 쥐고 있으라며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신자가 아니었던 저는 기도드리기엔 부끄러워 아플 때마다 친구 말대로 나무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견뎠고, 점차 상태가 좋아져 침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나무 십자가를 건넨 친구가 교도소에서 작은 연주회를 할 거라며 함께 가자고 했고, 사제복을 입은 신부님 두 분과 동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 중 한 신부님은 저와 같은 종류의 병으로 투병중이셨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늘 집에 숨어있다시피 한 저와 달리 신부님은 아파도 계속 신부님이시더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지 이렇다 할 대화 없이 우리는 서먹한 분위기 속에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참 따뜻한 음악회였습니다. 친구는 재소자들을 위해 연주했고 두 신부님은 기도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부쩍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부님과 저는 투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병으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어떤 고통이었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병 때문에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서 할 일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속상하고 원망스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제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또 자기가 아는, 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손을 다쳐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지금은 바이올린 만드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연주했던 사람이라 누구보다 바이올린을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냐며 저에게 제 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그 분야에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느덧 서울에 도착해 우리는 그 날 아침 처음 만났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두 신부님은 마지막 인사로 저에게 “성당에 한 번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말은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다시 만날 약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도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성당에 다니는 친한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는 대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키는 게 도리라며 주일에 성당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갔더니 글썽 친구가 딱하니 저를 예비자 교리에 등록해 뒀고, 열떨결에 저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중간에 관둘까 봐 반년 동안 저를 데리고 성당에 다니며 함께 교리공부를 하는 성의를 보였고, 그 덕에 저는 결국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신부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전 다시 학교로 돌아가 연출가의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신부님과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영혼을 담은 진실한 말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봅니다.

김호정 엘리사벳 | 영화배우

교리상식

교리상식



바티칸도 나라인가요?

바티칸의 공식명칭은 '바티칸 시국'으로 엄연히 독립국가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담장과 성베드로 광장의 기둥으로 로마 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바티칸 시국의 경계를 설정한 것은 1929년 맺어진 라테라노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이탈리아는 바티칸 시가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교황에 대한 모독은 국왕과 같은 비중으로 이탈리아 법의 처벌을 받으며 교회의 주요 법인 조직체는 정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바티칸 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출처: 『교회사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